

# 알레르기성 鼻炎의 침구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최원구 · 엄승철<sup>1</sup> · 이건목<sup>1\*</sup>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1: 원광대학교 산본한방병원 침구과

## Literal Stud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about Allergic Rhinitis

Won-Goo Choi, Seung-Chul Yeom<sup>1</sup>, Geon-mok Lee<sup>1\*</sup>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1: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San-bon Oriental Medical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upuncture points and the The Meridians and Collaterals which are often applicable to Allergic Rhinitis treatment and to help us do a clinical diagnosis. In my discretion, to study Allergic Rhinitis, investigating rhinitis, syuffy nose and nasal mucus is essential. And I investigated the acupuncture points and The Meridians and Collaterals and dialectic patterns which are useful for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I also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of the acupuncture points, and The Meridians and Collaterals and other dialectic patterns. The order of frequency in use of The Meridians and Collaterals is The Governer Vessel, The Large Intestine Meridian of Hand-Yangming, The Bladder Meridian of Foot-Taiyang and the order of frequency in moxibustion is The Governer Vessel, The Large Intestine Meridian of Hand-Yangming. In the acupuncture of stuffy nose, there are 33 points, and the order of frequency in use is LU20, GV23, LU4, GB15, GV20, BL7, GV22. In the acupuncture of nasal mucus, there are 21 points, and the order of frequency in use is LU20,, GV23, GV16, GV26, BL12, GV20, GB20. It is thought that acupuncture points LU20, GV23, LU4 can go through the nasal cavity and remove wind fever. And those are used for the face and the five sensory organs diseases. It means that those acupuncture points have similar efficacy. It is thought that The Meridians and Collaterals of The Governer Vessel, The Large Intestine Meridian of Hand-Yangming, The Bladder Meridian of Foot-Taiyang go on a patrol near nose and cure nose disease.

Key words : Allergic Rhinitis, stuffy nose, nasal mucus, The Meridians and Collaterals of The Governer Vessel, The Large Intestine Meridian of Hand-Yangming, The Bladder Meridian of Foot-Taiyang

### 서 론

鼻炎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코가 과잉기능을 보여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 및 후비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중에서 알레르기성 鼻炎은 IgE 매개 염증반응으로 인하여 생기는 코 점막의 질환이다<sup>1)</sup>. 韓醫學에서 鼻渊란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는 疾患으로<sup>2)</sup> 갑자기 코가 가렵고, 재채기가 나며, 맑은 콧물을 흘리면서 코가 막히다가 이내 모든 症狀이 없어지며, 코 粘膜은 하얗거나 흰 잿빛으로 붓고 코안에는 맑은 콧물

이 가득 차있는 疾患으로 鼻, 鼻流涕, 鼻嗽, 鼻嚏라고도 한다<sup>3)</sup>. 鼻渊의 原因은 內因으로는 脾, 肺, 腎의 虛弱과 飲食勞役이 있고, 外因으로는 風寒邪氣의 侵犯, 運氣, 六淫外傷이며, 不內外因으로는 心火, 七情內鬱 등이 있고 治療는 扶正祛邪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脾, 肺, 腎의 機能調節에 重點을 두어 溫補肺臟, 祛風散寒, 健脾益氣, 補腎納氣의 治法을 사용한다<sup>4)</sup>.

발작성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의 3대 症狀을 가진 알레르기성 鼻炎을 韓醫學의 鼻閉塞, 水樣性 鼻漏의 일부를 포함하는 鼻渊, 噴嚏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이는 鼻粘膜의 제 I형 過敏反應性 疾患이며, 제 I형 過敏反應을 일으키는 原因物質, 즉 면역글로불린 E를 형성하는 原因抗原을 알레르겐이라고 하며,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바퀴벌

\* 교신저자 : 이건목,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6-1 원광대학교 산본한방병원

· E-mail : geonmok@wonkwang.ac.kr, · Tel : 031-390-2676

· 접수 : 2006/06/02 · 수정 : 2006/07/05 · 채택 : 2006/07/28

래의 부스러기 등과 같은 抗原이 主要 알레르겐이다<sup>6)</sup>. 특히 알레르기성 鼻炎은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전 人口의 20%가 차지할 정도로 罹患 頻도가 높은 疾患이며, 해마다 유병율이 증가하는 趨勢이지만 아직까지 鼻炎의 精確한 診斷方法과 治療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sup>7)</sup>. 알레르기성 鼻炎 환자는 대부분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 반수 이상에서 알레르기성 천식,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등의 가족력이 있다<sup>8)</sup>. 症狀은 대개 遺傳的 要因, 年齡 및 性別, 大氣汚染, 氣候變化의 素因에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비듬과 털, 바퀴벌레 등의 外因性 알레르겐에 의해 誘發되며, 이의 診斷을 위해 全身的인 反應을 보는 피부반응검사법, 局所反應을 보는 비유발검사법의 체내검사법과 全身的인 反應을 보는 혈액내 호산구치, 혈청내 총 IgE, 국소적 반응을 보는 비침도말검사법이 있으나 환자의 症狀을 자세히 問診하는 臨床的 方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治療는 原因에 대한 回避가 가장 重要하지만 少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不可能한 方法이며 症狀에 따라 鼻粘膜收縮劑, 항히스타민제, 항알레르기약제, 스테로이드의 藥物 治療가 사용되며, 때에 따라 免役療法과 手術療法를 이용한다<sup>6)</sup>. 現代 社會는 文明의 발달에 따른 環境汚染의 增加, 居住生活의 變化, 吸煙, 바이러스성 上氣道 感染등에 따른 알레르기성 鼻炎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患者는 늘어가고 있다. 鼻炎에 관한 연구로 김 등<sup>9)</sup>은 鼻衄, 鼻涕, 鼻塞, 鼻淵의 鍼灸治療를 연구하였고, 김 등<sup>10)</sup>은 알레르기성 鼻炎에 관하여 文獻的으로 考察하였으며, 이 등<sup>11)</sup>은 鼻塞症과 알레르기성 鼻炎에 관하여 文獻的으로 考察하였으나 알레르기성 鼻炎 症狀에 관한 韓醫學的 구체적인 研究와 鍼灸治療에 대한 考察이 충분치 않았던 바 이에 著者는 알레르기성 鼻炎에 대한 韓醫學的 概念과 구체적인 鍼灸治療에 이용된 經穴과 經絡을 調查하고 그 辨證類型的 相關性을 研究하여 臨床活用に 이바지 하고자 보고하는 바이다.

## 문헌자료

1. 《鍼灸甲乙經校釋》<sup>12)</sup>  
 鼻衄衄 上星主之  
 鼻衄不利 窒洞氣塞 窩僻多涕衄衄有癢 迎香主之  
 鼻塞口僻 清涕出 不可知 衄衄有癢 禾膠主之  
 鼻衄不得息 不收涕 不知香臭 及衄不止 水溝主之
2. 《備急千金要方·七竅病·券六》<sup>13)</sup>  
 涕流不止, 灸鼻兩孔與柱齊七壯.  
 神庭, 迎香, 風門, 合谷, 至陰, 通谷, 主鼻衄清涕出.  
 曲差, 上星, 迎香, 素膠, 水溝, 齟交, 通天, 禾膠, 風府, 主鼻塞, 喘息不利, 鼻窩僻多涕, 衄衄有癢.
3. 《千金翼方·鍼灸·卷二十六》<sup>14)</sup>  
 鼻中壅塞 鍼手太陽入三分 在小指外側後一寸白肉際宛宛中  
 顛會一穴 主鼻塞不聞香氣 日灸二七至七白壯 初灸時痛, 五十壯已去不痛 七白壯還痛即止, 止四白壯漸覺鼻輕
4. 《針灸資生經》<sup>15)</sup>  
 鼻塞: 曲差, 上星, 迎香, 素膠, 水溝, 齟交, 通天, 禾膠, 風府  
 不知香臭: 天柱  
 頭痛鼻塞: 眉衝  
 鼻塞: 玉枕, 百會, 明堂, 商陽, 臨泣  
 鼻塞不聞香臭: 天牖  
 鼻塞: 至陰  
 鼻塞不聞香臭: 上星, 百會, 顛會 承光  
 鼻塞: 灸顛會  
 鼻塞悶: 臨泣 通天  
 鼻塞不通: 步廊  
 目眩鼻塞: 臨泣  
 鼻塞不利: 前谷 齟交  
 《鍼灸資生經·鼻涕出·卷六》  
 執中母氏 久病 鼻乾有冷氣 問諸醫者 醫者亦不曉 但云 病去日瘳 既而 病去亦不有也 後因灸絕骨而漸瘳 執中亦嘗患此 又絕骨微瘳而着艾 鼻乾亦失去 初不知是灸絕骨之力 後聞《千金方》有此證 始知鼻乾之去因絕骨也 若鼻涕多, 宜灸顛會, 前頂, 大人 小兒之病初無以異焉耳
5. 《針經指南合注》<sup>16)</sup>  
 鼻塞無聞, 迎香可引
6. 《鍼灸玉龍經·玉龍歌》<sup>17)</sup>  
 鼻流清涕名鼻淵, 先瀉後補疾可痊 若更頭風并眼痛, 上星一穴刺無偏(鼻淵則補 不聞香臭則瀉) 應太淵穴, 見後痰嗽歌  
 不聞香臭從何治, 迎香兩穴可堪攻 先補後瀉分明記, 金針未出氣先通  
 《鍼灸玉龍經·盤石金直刺秘傳》  
 鼻中生瘡 少商出血  
 鼻酸多涕 流清涕: 顛會 風門 灸  
 《鍼灸玉龍經·鍼灸歌》  
 鼻塞上星直可取
7. 《世醫得效方·鼻病·券十》<sup>18)</sup>  
 灸法: 顛會在鼻心直上入髮際二村, 再容豆是穴, 灸七壯. 又灸通天, 在顛會上一村兩傍各一村, 灸七壯, 左鼻灸左, 右鼻灸右, 俱鼻俱灸
8. 《針灸聚英·玉龍賦》<sup>19)</sup>  
 通天主 瘦氣, 鼻衄, 鼻瘡, 鼻塞, 鼻多清涕  
 鼻塞上星臨泣燒 百會前谷厲兌高.  
 通前通後共七穴 兼治合谷迎香焦  
 鼻流清涕治人中 上星風府三穴攻  
 久病流涕出不禁 百會灸之病絕根
9. 《古今醫統大全·鼻證門·卷六十二》<sup>20)</sup>  
 上星 灸三七壯 治鼻流清涕 濁涕

迎香 治鼻塞不通, 多涕, 舐衄

鼻涕: 臨泣 陷谷 補 解谿 陰谷 瀉

10. 《醫學入門·雜病六法 卷一》<sup>21)</sup>

鼻塞不聞香臭, 鍼迎香, 合谷

19. 《景岳全書》<sup>30)</sup>

迎香治鼻塞多涕

11. 《鍼灸大成》<sup>22)</sup>

鼻塞: 上星 臨泣 百會 前谷 厲兌 合谷 迎香

鼻流清涕: 人中, 上星, 風府

問曰: 此症緣何而得 答曰: 此因傷風不解, 食肉飲酒太早, 表裏不解, 咳嗽痰涎, 及腦寒疼痛, 故得此症. 復針後穴: 百會, 風府, 風門, 百勞.

久病 流涕不禁: 百會灸

20. 《鍼灸經驗方》<sup>31)</sup>

鼻塞: 百會, 上星, 顛會, 臨泣, 合谷, 厲兌 并皆灸之.

鼻不聞香臭: 顛會, 天柱, 水溝 并灸

## 고찰 및 결과

韓醫學에서 알레르기성 鼻炎은 鼻舐, 噴涕, 鼻涕, 舐涕 등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sup>10,32)</sup> 《素問玄機原病式·六氣爲病編》<sup>33)</sup>에서는 “舐爲鼻出清涕也”, “涕, 鼻中因痒而氣噴作于聲也”라 하여 ‘舐’는 알레르기성 鼻炎의 水楊性 鼻淵의 症狀과 ‘涕’는 발작성 噴涕의 症狀과 유사하다. 《素問·金樞真言論》<sup>34)</sup>에서는 “西方白色入通於鼻 開竅於鼻”라 하였고, “肺主鼻 鼻者肺之官 肺氣通於鼻”라 하여 鼻가 肺와 밀접한 聯關이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肺는 鼻를 主管하는 것으로서 邪氣가 鼻에 들어가서 心肺에 간직되므로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不利하게 된다 하였다. 그 發病 原因에 대해서는 歷代 醫家의 見解가 同一하지 않는데, 內經時代와 金元時代에서는 주로 ‘火熱’과 肺氣와의 關係를 언급하였으며, 明代前後로부터는 風寒邪가 皮毛, 鼻竅로 侵入과 肺氣와의 關係를 主要 原因으로 보고 있다. 또 風寒邪가 시간이 경과할 경우 鬱熱 肺伏火邪, 內化變發의 病理變化가 發生한다고 하였다<sup>10,32)</sup>.

西洋醫學에서 알레르기성 鼻炎은 가장 흔한 아토피성 疾患으로 최근 모든 鼻炎의 50%이상이 알레르기에 의해 誘發되며 全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약 20% 정도이고 해마다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sup>7)</sup>. 알레르기성 鼻炎은 증상발현의 시기에 따라 通年性과 계절性으로 구별하는데 通年性 알레르기성 鼻炎은 症狀이 特정한 季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主要 原因은 실내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다.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그 외 동물의 비듬, 바퀴벌레, 곰팡이 포자 등도 중요하다. 主要 症狀은 코가 가렵고,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하며 물같이 맑은 콧물을 흘리고 때로는 코막힘을 호소한다. 症狀이 慢性的이고 持續的이어서 患者는 항상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거나, 코를 골거나 鼻비동염 또는 감기를 달고 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코 이외에도 인후, 눈, 귀 등도 가려워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눈가에 부종이 있다. 두통, 피로감, 주의력결핍 등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계절性 알레르기성 鼻炎은 原因 抗原과 접촉이 있는 특정한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개 꽃가루가 원인이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鼻炎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흔히 발생한다. 대부분 2회 이상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계절을 겪은 후에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鼻炎을 일으킨다. 臨床症狀은 재채기가 주로 나타나고, 기타 코가려움증, 물 같은 콧물, 코막힘 등의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鼻炎의 症狀 외에도 결막, 인두, 위장관 기타 다양한 症狀

12. 《東醫寶鑑》<sup>23)</sup>

鍼灸法

鼻流清涕濁涕灸上星二七壯又取人中風府不愈又取百會風池風門大椎

鼻塞不聞香臭取迎香上星合谷不愈灸人中風府百勞前谷

13. 《類經圖翼·頭面七竅病. 卷十一》<sup>24)</sup>

鼻塞不聞香臭: 顛會(自七壯至七七壯 灸至四日漸退 七日頓愈) 上星 迎香 天柱 風門

14. 《孫真人千金方》<sup>25)</sup>

神庭 擗竹 迎香 風門 合谷 至陰 通谷 皆主鼻舐清涕出

15. 《醫部全錄》<sup>26)</sup>

[醫學綱目] 鼻流清涕濁涕 灸上星二七壯 清補濁邪 又取 上星 人中 風府不愈 兩取 百會 風池 風門 大椎

鼻閉塞不聞香臭 刺迎香一分 沿皮向上 瀉多補少 忌上星三分, 又法 迎香, 上星 合谷 三處 取之不愈 灸人中, 風府, 百勞

16. 《醫門寶鑑》<sup>27)</sup>

鼻者 肺之竅 神氣出入之門也 肺和則能辯五臭 不和則諸症生焉 蓋內鬱七情 外感六淫 脾氣不宣 清道壅塞之致也 治矣 寒則溫 熱則清 寒則通 壅則散 此其常法也 心血虧 腎水消 病久不愈者 宜養血補腎 此其治也

鼻塞者 皆屬肺也 其治有三 新而輕者...久而火鬱者... 內傷肺胃 清氣不能上升者.

17. 《鍼灸集成》<sup>28)</sup>

鼻塞: 百會, 上星, 顛會, 臨泣, 合谷, 厲兌 并皆灸之

舐衄: 水出曰舐, 血出曰衄. 風府, 迎香, 上星二七壯, 太衝, 絕骨, 合谷, 大陵, 尺澤, 神門.

鼻不聞香臭: 顛會, 天柱, 水溝 并灸

18. 《舍岩道人 鍼灸要訣》<sup>29)</sup>

鼻塞: 太白 太淵 補 少府 魚際 瀉

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천식이 동반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알레르기성 鼻炎은 알레르기의 素因이 있는 사람에게 꽃가루, 진드기, 먼지 등의 원인 항원에 露出되면 항원에 특이한 IgE가 生成되며 이것이 鼻粘膜의 비만세포, 호염기 세포에 결합되어 있다가 다시 抗原에 노출되면 抗原이 IgE가 생성되며 이것이 鼻粘膜의 비만세포, 호염기 세포에 결합되어 있다가 다시 抗原에 露出되면 抗原이 IgE에 결합하여 비만세포와 호염기 세포로부터 염증매개물질이 분비되어 맑은 물과 같은 콧물이 흐르며, 발작성 재채기, 코가 막히는 것의 症狀이 발현된다<sup>7)</sup>. 유발요소를 보면 먼지를 털거나 청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에 의한 경우,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을 쐬거나 겨울의 찬바람 등 溫度에 의한 경우,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사무용기기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環境에 대한 環境的 要因에 의한 경우, 그 외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나 感氣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sup>35)</sup>.

本論에서 제시한 20종의 古典文獻을 중심으로 알레르기성 鼻炎의 주 症狀인 鼻塞, 鼻流涕의 鍼灸治療에 관해 調査해 본 즉 다음과 같다. 鼻塞의 鍼灸治療에는 33穴이 쓰였으며, 迎香, 上星, 合谷, 臨泣, 百會, 額會, 通天 등의 順序로 多用되었으며,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古典文獻에 나타난 頻度別 鼻塞 治療穴

| 頻度     | 治療穴  |
|--------|--|
| 1. 針治療 |  |
| 10회이상  | 迎香(13) 上星(13)  |
| 5~9회   | 合谷(6) 臨泣(6) 百會(5) 額會(5) 通天(5)  |
| 2~4회   | 前谷(3) 厲兌(3) 水溝(3) 顴交(3) 天柱(2) 承光(2) 曲差(2) 素髎(2)<br>太淵(1) 禾膠(1) 風府(2) 眉衝(1) 玉枕(1) 風門(1) 神庭(1)<br>風府(1) 風池(1) 步廊(1) 商陽(1) 天牖(1) 至陰(1) 少府(1)<br>前頂(1) 承靈(1) 太白(1) 魚際(1) |
| 1회     |  |
| 2. 灸治療 |  |
| 4회이상   | 額會(4)  |
| 2~3회   | 水溝(3) 風府(2) 百勞(2) 上星(2) 百會(2)  |
| 1회     | 前谷(1) 承光(1) 承靈(1) 臨泣(1) 合谷(1) 厲兌(1) 前頂(1)<br>通天(1) 天柱(1)   |

鼻流涕의 鍼灸治療에는 21穴이 쓰였으며, 迎香, 上星, 風府, 水溝, 風門, 百會, 風池의 順序로 多用되었으며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古典文獻에 나타난 頻度別 鼻流涕 治療穴

| 頻度     | 治療穴  |
|--------|--|
| 1. 針治療 |  |
| 4회이상   | 迎香(5) 上星(5) 風府(4) 水溝(4)  |
| 2~3회   | 風門(3) 百會(3) 風池(3) 大椎(2) 神庭(2)  |
| 1회     | 百勞(1) 承光(1) 前頂(1) 承靈(1) 通天(1) 臨泣(1) 陷谷(1)<br>解谿(1) 陰谷(1) 禾膠(1) 太淵(1) 合谷(1) |
| 2. 灸治療 |  |
| 4회이상   | 額會(4)  |
| 2~3회   | 上星(3) 通天(2) 百會(2)  |
| 1회     | 風門(1) 前頂(1) 承光(1)  |

古典文獻에 나타난 經穴頻도를 살펴보면, 鼻塞의 鍼灸治療에는 督脈,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順序로 多用되었으며, 이들 經絡의 經穴이 차지하는 比率이 鍼灸治療에 이용된 모든 經穴의 77%를 차지하였다. 灸治療에서는 督脈,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比率은 80%였으며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古典文獻에 나타난 鼻塞 治療穴의 經絡에 따른 經穴頻度

| 經絡        | 穴數 | 經絡穴의 頻度數  | 總頻度數 |
|-----------|----|---|------|
| 1. 鍼治療    |    |   |      |
| 手太陰肺經     | 2  | 太淵(1) 魚際(1)   | 2    |
| 手陽明大腸經    | 4  | 迎香(13) 合谷(6) 禾膠(1) 商陽(1)                                  | 21   |
| 足陽明胃經     | 2  | 厲兌(3) 魚際(1)   | 4    |
| 足太陰脾經     | 1  | 太白(1)   | 1    |
| 手少陰心經     | 1  | 少府(1)   | 1    |
| 手太陽小腸經    | 1  | 前谷(3)   | 3    |
| 足太陽膀胱經    | 8  | 通天(5) 天柱(2) 承光(2) 曲差(2) 風門(1)<br>眉衝(1) 玉枕(1) 至陰(1)        | 15   |
| 足少陰腎經     | 1  | 步廊(1)   | 1    |
| 手少陽三焦經    | 1  | 天牖(1)   | 1    |
| 足少陽膽經     | 3  | 臨泣(6) 風池(1) 承靈(1)   | 8    |
| 督脈        | 9  | 上星(13) 百會(5) 額會(5) 顴交(3)<br>水溝(3) 素髎(2) 前頂(1) 風府(1) 神庭(1) | 34   |
| 2. 灸治療    |    |   |      |
| 手陽明大腸經    | 1  | 合谷(1)   | 1    |
| 足陽明胃經     | 1  | 厲兌(1)   | 1    |
| 手太陽小腸經    | 1  | 前谷(1)   | 1    |
| 足太陽膀胱經    | 3  | 承光(1) 通天(1) 天柱(1)   | 3    |
| 足少陽膽經     | 2  | 臨泣(1) 承靈(1)   | 2    |
| 督脈        | 7  | 額會(4) 水溝(3) 風府(2) 百會(2) 上星(2)<br>風府(1) 前頂(1)              | 15   |
| 經外奇穴 및 新穴 | 1  | 百勞(2)   | 2    |

鼻流涕의 鍼灸治療에는 督脈,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이 88%를 차지하였다. 鼻流涕의 灸治療에는 督脈과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이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Table 4)

Table 4. 古典文獻에 나타난 鼻流涕 治療穴의 經絡에 따른 經穴頻度

| 經絡        | 穴數 | 經絡穴의 頻度數                                     | 總頻度數 |
|-----------|----|--|------|
| 1. 鍼治療    |    |  |      |
| 手太陰肺經     | 1  | 太淵(1)  | 1    |
| 手陽明大腸經    | 3  | 迎香(5) 禾膠(1) 合谷(1)                            | 7    |
| 足陽明胃經     | 2  | 解谿(1) 陷谷(1)                                  | 2    |
| 足太陽膀胱經    | 3  | 風門(3) 承光(1) 通天(1)                            | 5    |
| 足少陰腎經     | 1  | 陰谷(1)  | 1    |
| 足少陽膽經     | 3  | 風池(3) 承靈(1) 臨泣(1)                            | 5    |
| 督脈        | 7  | 上星(5) 風府(4) 水溝(4) 百會(3) 大椎(2)<br>神庭(2) 前頂(1) | 21   |
| 經外奇穴 및 新穴 | 1  | 百勞(1)  | 1    |
| 2. 灸治療    |    |  |      |
| 足太陽膀胱經    | 2  | 通天(2) 風門(1)                                  | 3    |
| 足少陽膽經     | 1  | 承光(1)  | 1    |
| 督脈        | 4  | 額會(4) 上星(3) 百會(2) 前頂(1)                      | 10   |

Table 5. 主要經穴의 穴性

| 經穴 | 經脈     | 穴性                 |
|----|--------|--------------------|
| 迎香 | 手陽明大腸經 | 通鼻竅, 散風邪, 清氣火      |
| 上星 | 督脈     | 通鼻竅, 散風熱           |
| 合谷 | 手陽明大腸經 | 發表解熱, 清泄肺氣, 通經活絡   |
| 風府 | 督脈     | 祛風邪, 利機關, 清神志, 泄氣火 |
| 太衝 | 足厥陰肝經  | 清熄肝火肝陽, 疎泄下焦濕熱     |
| 百會 | 督脈     | 清熱開竅, 清神志, 回陽固脫    |
| 攢竹 | 足太陽膀胱經 | 疏風泄火, 滋水明目         |
| 臨泣 | 足少陽膽經  | 清火熄風, 明目聰耳, 化痰熱    |
| 太淵 | 手太陰肺經  | 祛風化痰, 理肺止咳止痛       |
| 人中 | 督脈     | 清熱開竅, 清神志, 祛風邪     |
| 風門 | 足太陽膀胱經 | 消散風寒, 調理肺氣         |
| 風池 | 足少陽膽經  | 清頭開竅, 調氣血, 利機關     |

多頻度로 사용된 迎香穴은 手陽明大腸經 上의 經穴로서, 일명 衝陽穴 이라고도 하는데, 《針灸甲乙經》<sup>36)</sup>에서는 “迎香, 一名衝陽 在禾膠上鼻下孔旁, 手足陽明之會”라 하였으며, 《醫心方》<sup>37)</sup>에서는 “足陽明胃腑, 又手陽明大腸”이라하여 手足陽明經의 交會穴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迎香穴은 鼻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素問·氣府論》<sup>34)</sup>에는 “鼻孔外廉項上各二”라 하였고, 《備急千金要方》<sup>13)</sup>에는 “在禾膠上一寸鼻孔傍”이라 하였으며, 《針灸聚英》<sup>19)</sup>에서는 “在禾膠上一寸, 鼻孔傍五分”이라 하였다. 鍼法을 살펴보면 《針灸甲乙經》<sup>36)</sup>과 《醫心方》<sup>37)</sup>등의 서적에서는 “刺入三分”이라 되어있다. 歷代文獻에서는 모두 “不宜灸”라하여 灸法을 삼갈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직 《醫心方》<sup>37)</sup>에서만 “灸三壯”이라 하였다. 《針灸甲乙經》<sup>36)</sup>에서는 “鼻軌不利, 窒洞氣塞, 窩僻多涕, 軌衄有癰” 이라고 하였으며 《備急千金要方》<sup>13)</sup>에서는 “鼻軌, 清涕出. 鼻窒, 喘息不利, 鼻窩僻多涕, 軌衄有瘡. 口窩僻不能言”이라고 하였고, 《醫學入門》<sup>21)</sup>에서는 “主眼目赤腫, 鼻塞, 不聞香臭”라 하였으며, 《針灸聚英》<sup>19)</sup>에서는 “主鼻塞不聞香臭, 偏風口齒, 面癢浮腫, 風動葉狀如蟲行, 脣腫痛, 喘息不利, 鼻軌多涕, 軌衄有瘡, 鼻有息肉”이라하여 頭面部 疾患에 두루 사용되었으며 특히 鼻疾患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針灸學》<sup>38)</sup>에서도 “大腸與肺相表裏, 肺開竅於鼻, 迎香又位于鼻部, 故可治療不聞香臭及鼻部諸病”이라하여 大腸과 肺가 表裏를 이루며 그 穴位가 鼻部位에 位置하고 있어 鼻疾患에 다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上星穴은 《針灸甲乙經》<sup>36)</sup>에 최초로 나오는데 “上星一穴, 在顛上, 直鼻中央, 入髮際一柵陷者中, 可容豆. 督脈氣所發” 이라고 되어 있어 督脈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針灸甲乙經》<sup>36)</sup>과 《醫心方》<sup>37)</sup>에서는 “刺入三分, 留六呼”라고 하였다. 灸法을 살펴보면 《針灸甲乙經》<sup>36)</sup>과 《針房六集校釋》<sup>39)</sup>에서는 “灸三壯”이라 되어있고, 《醫心方》<sup>37)</sup>에서는 “灸五壯”이라고 하였다. 《針灸甲乙經》<sup>36)</sup>에서는 “熱病, 汗不出, 瘧瘧, 面腫, 面脹, 面眩, 善嘔, 須滿, 顏青, 癰疾, 鼻軌衄”이라고 되어있으며, 《醫心方》<sup>37)</sup>에서는 “風暈, 顏清, 須嘔, 癰疾, 面浮腫, 鼻衄, 頭痛引頰, 瘧瘧, 熱病不汗出, 頭痛不能視” 라고 하였고, 《針灸聚英》<sup>19)</sup>에서는 “主面赤腫, 頭風, 頭皮腫, 面虛, 鼻中息肉, 鼻塞頭痛, 瘧瘧”이라하여 頭面部疾患과 熱性疾患에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針灸學》<sup>38)</sup>에서는 “上星穴在顛上, 直鼻中央, 督脈所發, 有宣泄諸陽熱氣的功效, 本穴令兩目, 通于鼻, 故是治療頭目及各種鼻病的要穴”이라고 하여 上星穴의 위치가 鼻의 上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陽氣를 宣泄하는 효과가 있어서 頭目 및 각종 鼻疾患의 要穴이라고 하였다.

合谷穴은 《靈樞·本輸》<sup>40)</sup>를 살펴보면 “大腸經的原穴, 大腸...過於合谷, 爲原”이라고 하여 手陽明大腸經의 原穴이라고 하였다. 일명 “虎口”라고도 하는데 大指肢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針灸甲乙經》<sup>36)</sup>에서는 “瘧瘧, 寒熱, 痲痺臂腕不用, 吻吻不收, 狂易, 瘧不能言, 聾, 耳中不通. 齒齲痛, 喉痺”라 하였고 《醫心方》<sup>37)</sup>에는 “寒熱瘧, 狂易, 鼻軌衄, 目痛, 頭齒痛, 喉痺, 臂腕不用, 面腫口噤” 이라 하였고, 《針灸聚英》<sup>19)</sup>에서는 “主傷寒大渴, 脈浮在表, 發熱惡寒, 頭痛脊強, 無汗, 寒熱瘧, 鼻衄不止, 熱病汗不出”이라하여 面部와는 떨어져있으나 五官 및 精神疾患에 두루

사용된 經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鼻塞, 鼻流涕 등에 다용된 迎香, 上星, 合谷 등의 經穴들은 대부분 疏散風熱, 通鼻竅 시키는 效能을 주로 가지고 있었으며 頭面 및 五官疾患에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레르기성 鼻炎 治療의 일반적인 치료원칙인 疏風宣肺, 通利鼻竅의 原則과 一脈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다용된 經絡인 督脈은 그 循行路線이 《針灸甲乙經》<sup>36)</sup>에 나타나있는데, 督脈은 아랫배에서 시작하여 脊柱 속을 따라 風府穴로 올라가서 腦에 속하고 머리꼭대기로 가서 이마를 돌아 콧대에 이른다 하였고. “素膠, 鼻柱下端. 督脈氣所發. 水溝. 在鼻柱下人中, 督脈手足陽明之會”라고 하여 督脈이 鼻部位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手陽明大腸經의 循行 中 面部를 살펴보면 大腸經은 缺盆에서 목으로 올라가 髀를 관통하여 깊이 齒齲로 들어가고 다시 돌아나와 입술을 끼고 人中부분에서 서로 交叉하여 왼쪽 脈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脈은 왼쪽으로 향하여 鬚구멍 양쪽을 끼고 上行하여 足陽明胃經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靈樞·經脈篇》<sup>40)</sup>에 “大腸手陽明之脈...其支者, 從缺盆上頸貫頰,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 이라고 되어있다. 足太陽膀胱經은 그 시작점이 鼻部位와 근접함을 알 수 있는데 《靈樞·經脈篇》<sup>40)</sup>에 “膀胱足太陽之脈, 起于目內眥”라고 되어있다. 王<sup>41)</sup>은 “手陽明經于鼻傍(迎香)... 足太陽經筋結于鼻... 督脈行鼻柱正中”이라하여 手陽明大腸經과, 足太陽膀胱經, 督脈이 鼻部位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多用된 經絡들의 循行路線은 鼻部位를 지나거나 近接하고 있어서 直接의 鼻疾患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辨證論治의 方法에 따른 鍼灸治療의 傾向性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鼻軌의 發病原因에 대해 《素問·五常政大論》<sup>34)</sup>에서 주로 火熱이 太過한 해에 肺氣에 影響을 미쳐서 火熱燥金의 病理變化를 일으켜 軌衄, 軌嚏 등의 肺病을 發生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劉<sup>42)</sup>와 李<sup>21)</sup>는 風寒邪가 腠理를 閉塞시킴으로써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熱鬱, 肺伏火邪, 內火更發의 病理變化가 發生한다고 보았다. 李<sup>43)</sup>는 肺와 腎陽虛, 冬節, 寒邪를 病因으로 보았고, 張<sup>30)</sup>은 風寒邪가 腠理와 經絡을 壅塞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아 內經時代와 金元時代에서는 주로 火熱과 肺氣의 關係를 언급하였으며, 明代 以後로부터는 風寒邪의 皮毛, 鼻竅로 의 侵入과 肺氣와의 關係를 重要原因으로 보았다.

특히 《古今醫統大全》<sup>20)</sup>에서는 “心肺有熱而 鼻爲之不利也”라고 하여 心肺有熱이 鼻不利의 主要病因이라고 認識하였다. 中國의 최근 文獻에서 언급하고 있는 病因病理를 살펴보면, 첫째, 肺氣虛弱으로 인한 感受風寒型으로 《景岳全書》<sup>30)</sup>에서 “凡由風寒而鼻塞者 以寒閉塞腠理 則 經絡壅塞而多軌涕”라고 했고, 《太平聖惠方》<sup>44)</sup>에서는 “肺氣通于鼻 其藏者冷 隨氣乘于鼻 故使津液流涕 不能自收也”라 하여 風寒邪가 肺와 皮毛를 侵犯하여 나타나는 病理反應으로 그 기전을 인식하였다. 둘째로는 脾肺氣虛로 인한 水濕泛鼻型으로 《醫學入門》<sup>21)</sup>에서 “鼻內清氣出入之道 清氣者 胃中生發之氣也”라하여 肺는 氣를 주관하고 脾는 氣血生化之原의 臟인데 肺氣의 充實은 後天水穀精微의 부단한 充養에 의존하기에 脾의 運化作用이 失調되면 肺氣不足을 초래하고 그로 인

해 肺의 宣發, 肅降作用이 失調되어 津液이 停滯됨으로써 寒濕이 鼻部에 凝結되는 기전으로 認識하였다. 셋째로는 腎氣虧損으로 인한 肺氣溫煦型으로 腎은 水의 臟이고 肺는 水의 上源으로 腎의 納氣作用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氣가 上浮하여 嚏涕發作이 일어나고 腎의 陽氣가 부족하면 寒水가 上泛하여 清涕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 기전을 說明하고 있는바 《東垣十種醫書》<sup>43)</sup>에서 “肺者腎之母 皮毛之元陽本虛弱 更以冬月助其令 故病者善涕 鼻流清涕 寒甚出濁涕”라 하여 腎虛가 病因이 됨을 言及하였다.

鼻塞不利, 鼻流清涕의 原因에 관해서 《中醫診斷學》<sup>45)</sup>에서는 虛寒을, 《中醫耳鼻喉科學》<sup>4)</sup>에서는 肺經風熱, 膽腑鬱熱, 脾經濕熱, 肺氣虛寒, 脾氣虛弱으로, 《鍼灸學》<sup>46)</sup>에서는 肺寒, 《鍼灸와 臨床》<sup>47)</sup>에서는 脾虛, 腎虛로, 《鍼灸學》<sup>48)</sup>에서는 脾氣虛, 腎氣虛로, 《最新鍼灸治療學》<sup>49)</sup>에서는 風寒邪 外感, 風熱邪 外感, 肺虛, 脾虛로, 《中醫鍼灸治療學》<sup>50)</sup>에서는 外感風寒, 外感風熱, 肺虛失宣, 氣滯血瘀, 肺虛津虧, 脾虛津虧, 肺氣虛弱으로 보았다. 辨證分類에 따른 鍼灸治療에 관해서도, 王<sup>4)</sup>은 肺經風熱, 膽腑鬱熱, 脾經濕熱에 迎香, 印堂, 太陽, 合谷, 風池, 曲池, 足三里를 肺氣虛寒, 脾氣虛弱에서는 迎香, 百會, 上星, 合谷, 攢竹, 風池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鍼灸學》<sup>46)</sup>에서는 肺寒에 太淵 太白 補, 少府 魚際 瀉를 사용하였고, 文<sup>10)</sup>은 脾虛에는 脾俞, 足三里를 腎虛에는 腎俞, 命門을 사용하였고, 孫<sup>49)</sup>은 脾氣虛에 脾俞, 氣海, 足三里를, 腎氣虛에 腎俞, 太谿를, 金<sup>49)</sup>은 風寒邪 外感에 迎香, 列缺, 風門, 風池, 合谷을, 風熱邪 外感에 尺澤, 魚際, 曲池, 外關, 大椎를, 肺虛에 肺俞, 百會, 迎香, 太淵을 氣滯血瘀에 上星, 通天, 迎香, 禾膠, 太陽, 合谷을 사용하였고, 脾虛의 경우에 脾俞, 太白, 章門, 迎香, 風池, 迎香, 肺俞, 太淵을 사용하였다. 邱<sup>50)</sup>은 外感風寒에는 迎香, 列缺, 風門, 風池, 合谷을, 外感風熱에는 尺澤, 魚際, 曲池, 外關, 大椎를 肺虛失宣에는 肺俞, 百會, 迎香, 太淵을, 氣滯血瘀에는 上星, 通天, 迎香, 禾膠, 太陽, 合谷을, 肺虛津虧 太淵, 太白, 迎香을, 脾虛津虧에는 脾俞, 太白, 章門, 迎香을 肺氣虛弱, 寒邪犯脾에는 風池, 迎香, 肺俞, 太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文獻을 통해서 共通點을 찾기란 곤란하다. 하지만, 알레르기성 鼻炎 症狀 치료에 주로 사용된 經穴과 經絡을 통해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多頻도로 사용된 迎香, 上星, 合谷 등의 經穴들은 疏散風熱, 通鼻竅의 效能이 있어서 알레르기성 鼻炎 증상의 일반적인 治療原則인 疏風宣肺, 通利鼻竅의 원칙과 一脈相通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經絡으로서의 督脈,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모두 鼻部位를 직간접적으로 循行하는 經絡으로서 鼻疾患에 治療效果를 나타내고 있다고 思慮된다. 사회가 現代化되고 文明化되는 가운데 다발하고 있는 다양한 알레르기성 疾患에도 이러한 經穴과 經絡들의 사용은 유효한 效果를 나타내리라 생각되며 적극 活用함으로써 臨床的인 治療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결 론

알레르기성 鼻炎 症狀의 鍼灸治療에 대해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알레르기성 鼻炎 症狀의 鍼灸治療에 있어 經絡別 使用頻度數는 督脈,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順序로 多用되었고, 灸治療에는 督脈, 足太陽膀胱經의 順序로 多用되었다. 鼻塞의 鍼灸治療에는 33穴이 쓰였으며, 迎香, 上星, 合谷, 臨泣, 百會, 通天, 顛會 등의 順序로 多用되었다. 鼻流清涕의 鍼灸治療에는 21穴이 쓰였으며, 迎香, 上星, 風府, 水溝, 風門, 百會, 風池 등의 順序로 多用되었다. 鼻塞, 鼻流清涕등에 다용된 迎香, 上星, 合谷 등의 經穴들은 疏散風熱, 通鼻竅 시키는 效能을 주로 가지고 있으며 頭面 및 五官疾患에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레르기성 鼻炎 治療의 一般的인 治療原則인 疏風宣肺, 通利鼻竅의 原則과 一脈相通하며 그 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鼻炎 症狀治療에 다용도로 사용된 督脈,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등의 經絡들은 직간접적으로 鼻部位를 循行하고 있으면서 鼻疾患에 治療效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1. 의학교육연수원편.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954-955, 2001.
2. 대한형상의학회. 東醫寶鑑. 서울, 동의보감출판사. p 567, 2005.
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정담출판사. p 603, 1998.
4. 王德驥. 中醫耳鼻喉科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pp 482-485, 1980.
5. 鄭智天 外. 알레르기성 鼻炎에 관한 文獻의 考察. 대한안비인후피부과학회지 7(1):53-79, 1994.
6. 민양기. 임상비과학. 서울, 일조각. p 81, 82, 169, 236, 237, 2004.
7. David, P. MD. Allergic rhinitis: Definition, epidemiology, pathophysiology, detection and diagnosis, The J of Aller and Clin Immunol. 14(2):162-167, 1993
8. 대한안비인후과학회편. 이비인후과학. 서울, 일조각. p 992, 2002.
9. 김영화, 이병열. 鼻飮, 鼻涕, 鼻塞, 鼻淵의 針灸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8(2):259-272, 2000.
10. 김윤자, 김장현. 알레르기성 鼻炎에 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0(1):17-34, 1996
11. 이주희외. 痞塞症과 알레르기 鼻炎에 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4(1):26-34, 1993.
12. 山東中醫學院校釋. 針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463, 1979.
1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93, 453, 436, 1997.

14. 孫思邈. 千金翼方.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265, 1997.
15. 王執中. 針灸資生經. 서울, 一中社. pp 19-21, 1991.
16. 竇杰. 針經指南合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242 1998.
17. 王國瑞. 針灸玉龍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8, 9, 119, 123, 1995.
18. 危亦林. 世醫得效方. 서울, 醫聖堂. p 346, 1990
19. 高武. 針灸聚英.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18, 102, 205, 263, 264, 1999.
20.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61, 250, 1998.
21.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 70, 416, 187, 1983.
22. 楊繼洲. 針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pp 301-302, 1975.
2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 241, 1994.
2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p 364, 1992.
25.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553, 1996.
26. 陳夢雷. 醫部全錄.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p 25, 1979.
27.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翰林院. p 204, 1987.
28. 廖潤鴻. 針灸集成. 北京, 北京中國書店. p 56, 1986.
29. 舍岩道人. 舍岩道人針灸要訣. 서울, 杏林出版社. p 147, 1996.
30.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一中社. p 484, 1993.
31. 許任. 針灸經驗方. 서울, 杏林書院. p 43, 1970.
32. 양재하 외. Allergy성鼻炎에 대한 洋·韓方의 考察. 제한동 의학술원 논문집 4(1):436-448, 1994.
33.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6, 1999.
34. 王冰. 黃帝內經素問.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9, 91, 1997.
35. 이해자, 박은정. 알레르기성鼻炎의 臨床的 研究. 대한한방소 아과학회지 15(2):167-175, 2001.
36. 皇甫謐. 針灸甲乙經.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21, 24, 30, 1999.
37. 丹波康賴. 醫心方.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73, 75, 80, 1996.
38. 何樹槐. 針灸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150, 325, 1986.
39. 吳崑. 針房六集校釋. 서울K, 醫聖堂. p 122, 1993.
40. 王冰. 靈樞經.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3, 12, 11, 1999.
41. 王啓才. 經絡的研究及臨床應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367, 1998.
42. 劉完素. 河間六書(醫部全錄 第6篇). 香港, 新風文出版社. pp 628-629, 1982.
43.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一中社. pp 179-180, 416-418, 1993.
44. 太宗命.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p 1119, 1979.
45. 鄧鐵濤.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578-579, 1987.
46. 全國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鍼灸學 下. 서울, 집문당. pp 1223-1225, 1994.
47. 문헌길, 문에숙 공저. 針灸와 臨床. 서울:근자출판사.2003:892
48. 孫國杰. 針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134-1135, 2000.
49. 김기현. 最新鍼灸治療學. 서울, 成輔社. pp 779-782, 2002.
50. 岳茂良. 中醫針灸治療學. 中國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 554-558, 1992.